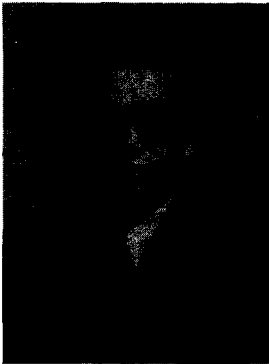


1992年度 우리 經濟展望

—아마 근래에 보기 드문
어려운 해가—



宋 基 徹
(高麗大學校 教授 · 經 博)

目 次

1. 어려웠던 '91 經濟
2. 정말 어려워질 '92 經濟
3. 今後的 展望과 對策

1. 어려웠던 '91 經濟

어느 사이에 多事多難했던 91년도 저물기 시작했고 더욱 더 多事多難하면서도 아주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92년을 맞게 된다. 年末年始가 되면 의례히 있는 일이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反省하면서 새로 맞을 새해를 여러모로 檢討·豫測해서 이에 대한 對應策을 마련 이에 適切히 대처하는 마음가짐과 對應을 하는 일은 切實한 것으로 생각된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經濟는 86년부터 79年和 80년의 第2次 石油波動, 10·26事態와 12·12事態 그리고 光州事態와 5·17 그리고 大凶作으로 이어져 마이너스 6.2% 低成長, 44%에 이르는 高物價, 50億弗 以上の 國際收支赤字란 극심한 最惡의 狀況에 있었다. 80年代初부터 이루어진 政治·社會面에 있어서의 安定화와 低油價, 低弗貨(低元貨) 그리고 低金利란 3低의 「國運」에 힘입어 우리 經濟는 史上 類例가 없는 높은 成長에 낮은 物價 그리고 國際收支黑字란 놀라운 經濟成果를 얻어 國外에서는 「네마리龍 중에 가장 먼저 昇天하는 龍이라든가, 第2의 日本」 등과 같은 칭찬을 받았고 國內적으로 으쓱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모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좋은 經濟狀況은 86년에 이어 87年和 88년에 이어졌고 88년의 우리 經濟狀況은 史上 最大의 좋은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좋은 狀況이 약 10년정도 오래갈 것으로 錯覺을 일으켰고 또한 3低란 國運이 加勢한 事實을 輕視 혹은 無視하고 100% 自力로 이루어진 것으로 誤認, 政府, 企業家, 勤勞者, 國民 모두가 교만해져서 政府施策, 企業家精神, 勤勞者精神 그리고 國民 姿勢도 해이해져서 輸出이 輸入爲 主로 勤勉이 나태로 節約이 浪費로, 生産이 消費로, 나 때문인가 너 때문에 등등으로 急激하게 經濟競爭力을 喪失하게끔 되었다.

89년에 이런 徵候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90年

<表 1> 1991年 經濟展望

項 目	單 位	當初展望	修 正 展 望		
			上半期(都賣)	下半期	年 間
GNP 成 長 率	%	9.0	9.1	8.3	8.7
民 間 消 費	%	8.7	9.1	8.7	8.9
固 定 投 資	%	15.3	17.5	10.6	13.7
(設 備)	%	(7.9)	(16.3)	(13.0)	(14.5)
(建 設)	%	(13.0)	(18.5)	(8.5)	(13.1)
經 常 收 支	億弗	△ 38	△ 58	△ 11	△ 69
貿 易 收 支	億弗	△ 32	△ 51	△ 7	△ 58
輸 出	億弗	748	330	378	708
輸 入	億弗	872	381	385	765
移 轉 收 支	億弗	△ 6	△ 7	△ 4	△ 11
都 賣 物 價	%	3.1	1.2	-	3.1
消 費 者 物 價	%	9.7	6.5	-	9.7

※註:()內는 前年對比增加率

에 이런 나쁜 狀況이 深化되고 91년에는 이런 나쁜 經濟狀況이 構造化해서 經濟가 急激하게 惡化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各 經濟機關의 豫測은 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官邊經濟研究機關인 KDI의 91年 經濟豫測은 전혀 헛짚어서 몇 차례의 經濟豫測을 修正할 만큼 우리 經濟는 異例的으로 惡化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우리 經濟가 91년에 豫測以上으로 惡化된 것은 國際的 經濟環境의 變化 즉 美國을 위시한 先進國에서의 開放化壓力, 北方市場의 硬化, 中東進出의 期待밖의 不振 등 여러 要因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惡化事態의 本質은 우리들 自身 즉 政府와 企業家 그리고 勤勞者, 國民 모두가 우리 經濟의 實相을 제대로 把握치 못하고 우리 經濟를 誇大平價하여 6·29 宣言 이후의 民主化施風으로 「제목 찾기」에 腐心한 나머지 懈怠, 奢侈, 방종하기 시작한 結果 經濟는 急轉直下 어려운 局面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 91年の 우리 經濟는 어떻게 되었는가?

<表 2> '91年 經濟成長展望 (%)

	90	91		
		上半期	下半期	年 間
實 質 GNP	9.0	9.1	8.2	8.6
民 間 消 費	10.4	9.1	7.2	8.1
固 定 投 資	23.4	17.5	13.5	15.3
商 品 輸 出	4.6	11.8	9.2	10.4
商 品 輸 入	13.2	17.7	16.3	16.8

第6共和國 經濟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파트에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해서 아파트問題로 들끓기 시작했고 아파트 문제로 끝나버린 느낌이 없지 않은 經濟였다고 할 수 있다. 91年の 우리 經濟도 문제는 아파트문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經濟主要指標의 하나인 經濟成長은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年 國內經濟는 國民消費 固定投資 등 建築景氣, 內需景氣의 꾸준한 增加와 꾸준한 輸出增加와 그를 훨씬 웃도는 輸入增加로 上半期中 9.1%의 實質成長을 기록하였다.

民間消費는 交通, 通信 및 醫療, 保健, 서서비스와 乘用車, TV 등 耐久消費財에 대한 支出을 中心으로 9%선의 增加勢를 유지하였고, 建設景氣는 2/4分期 이후 점차 進正되고 있으나 아직 建設景氣 過熱에 따른 人力難, 資金難, 資材難이 있었던 것이 現實이었다. 下半期중에는 赤字基調下的 政策變化로 消費增加勢가 다소 鈍化되고 建設景氣가 점차 鎮定되는 등 內需景氣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經濟成長은 90年과 비슷한 8.6%線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物價狀況을 보면 表3과 같다.

<表 3> '91年 物價展望 (期間平均 %)

	90	91		
		上半期	下半期	年 間
消費者物價	8.6	10.5	9.5	10.0
都 賣 物 價	4.2	7.0	5.0	6.0

90년에 높은 上昇勢를 보였던 國內物價는 91년에 들어서도 8月末 現在 消費者物價 基準으로 8.3% 上昇하는 등 인플레이션 趨勢가 계속되고 있다. 2/4分期 이후 上昇幅이 다소 둔화되어 物價오름세가 鎮定되는듯 하였으나 8月 들어서는 82年이후 年間 最大 上昇幅인 1.3%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금후의 國內物價는 政府가 總需要管理를 위해 通貨供給 억제를 지속하고 建設景氣鎮定 努力을 強化함에 따라 需要壓力要因은 다소 緩和되겠지만 高金

<表 4> '91年 國際收支推移 (億달러, %)

	90		91		
	1-7月	年間	6月	7月	1-7月
經常收支	-10.4	-21.8	-3.8	11.9	-70.4
貿易收支	-8.4	-20.0	-1.4	-9.5	-60.8
貿易外및移轉收支	-2.0	-1.8	-2.4	-2.4	-9.6

리에 따른 原價負擔에다 高賃金, 高稅金 등 原價壓力이 加重됨에 따라 高物價 趨勢는 不可避할 것으로 豫想되며 이에 따라 年間 消費者物價上昇率은 90年 보다 다소 높은 10%선에 이를 것이 豫想되기도 한다.

對外去來狀況을 볼 것 같으면 90년의 赤字反轉에 이어 91년에 들어 經常收支赤字規模가 더욱 擴大되어 가면서 國際收支防禦가 國內經濟의 最大懸案問題로 浮刻되고 있다. 91年 1~7月 중 우리나라 經常收支赤字規模는 90年 같은 期間의 7배에 달하는 70.4億弗에 이르렀고 7月중에 經常收支가 表4에서 같이 11.9億달러의 赤字를 보여 下半期 이후 均衡 내지 黑字를 이루리란 政府나 韓國銀行의 樂觀論이 크게 빛나갔다.

특히 최근의 地域別 輸出入狀況을 보면 7月 들어 對日輸出이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對美輸出이 90年 同月比 12.9%의 減少勢를 나타냈다. 好調勢를 보였던 對EC輸出 조차 90年 同月比 1.1%의 減少勢로 反轉되었다. 반면에 輸入은 美國·日本·EC·中國 등 全地域으로부터

<表 5> '91年 地域別 輸出入推移

(通關基準, %)

地 域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美 國	輸出 增加率 (%)	-5.7	-11.8	-9.6	2.1	0.5	-1.4	-12.9
	輸入 增加率 (%)	11.3	28.9	8.7	23.4	21.3	2.9	20.0
日 本	輸出 增加率 (%)	11.2	-7.4	-5.1	20.1	13.7	2.8	0.1
	輸入 增加率 (%)	31.6	9.4	11.7	45.7	25.2	19.3	24.9
E C	輸出 增加率 (%)	54.9	37.8	27.5	30.4	32.1	12.6	- 1.1
	輸入 增加率 (%)	25.6	43.9	3.7	30.5	11.4	22.0	12.8

<表 6> '91年 國際收支展望

(億弗, %)

		90	91			
			上半期	下半期	年間	政府
經常收支		-21.8	-58	-30	-88	-30
通 關 基 準	貿易收支	-48.3	-65	-50	-115	-60
	輸出	660.2	340	393	733	735
	(增加率)	(4.2)	(14.2)	(11.3)	(12.7)	(13.0)
	輸入	698.4	405	443	848	795
	(增加率)	(13.6)	(24.5)	(18.8)	(21.4)	(13.8)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表5와 같다.

이러한 最近의 추세를 감안할 때 下半期중에도 國際收支赤字狀態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結果 91년의 貿易收支赤字는 120億 달러에 이르고 經常收支赤字規模도 政府豫想的 3배에 가까운 90億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表6參照) 그 理由는 輸出은 國際競爭力弱화로 輸出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반면에 輸入은 금후에도 流通市場의 擴大 등 市場開放의 여파로 消費財 輸入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이는데다 資本財의 對日依存關係가 短期間內에 解消되기 어려워 큰 幅의 增加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정말 어려워질 '92經濟

91년의 이런 어려운 우리 經濟狀況은 92년에 들어 정말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 豫想되고 있어서 큰 걱정이 된다.

먼저 世界經濟는 91年 下半期이후 서서히 回復局面에 진입하여 92年中에는 2.8%의 비교적 높은 成長勢를 記錄할 것이란 樂觀論도 없지 않다. 그 根據로는 91年初 걸프戰爭의 早期終戰으로 油價가 安定되고 物價不安이 解消되면서 美國, 英國 등 主要先進國들은 景氣浮揚을 위해 金融緊縮綜合政策을 펴고 있고 當分간은 이러한 政策基調를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蘇聯을 위시한 東歐諸國의 不安, EFA創設 등에 따른 地域主義擡頭, 여전한 中東諸國의 不安 등 여러가지 事情으로 景氣下降을 내다보고 있는 悲觀論도 있음을 注視해야 한다.

하여간 世界景氣의 回復勢와 UR協商에 의한 새로운 交易秩序의 定着 등으로 92年度 世界交易伸張率은 91년의 2.5% 보다 다소 높은 5%선에 이를 것으로 보는 見解도 없지 않다. 특히 國際貿易環境에 있어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協商 妥結이不振하여 雙務主義와 地域主義가 擴散되고 있으나 어떤 形態로든 우루과이 라운드協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 92년부터는 世界景氣 및 國際交易의 秩序가 어느 정도 잡아져 가는 方向으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커다란 흐름속에서 92년의 우리 經濟를 내다봄에 있어서 몇가지 經濟主要指標에 대한 前提條件의 豫則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92년에는 우리 經濟를 내다봄에 있어서 政治經濟요 社會經濟요 心理經濟라 할진데 國際적으로 國內적으로 볼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環境에 놓일 것 같다.

우선 國際적으로 볼 때에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妥結方向, 蘇聯을 위시한 東歐諸國 그리고 外見상으로 安定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中國動向과 특히 우리와 깊은 關係에 있는 北韓의 統一政策과

核問題, 그리고 EC를 중심으로 하는 地域經濟의 擴大로 EFA창설과 다른 여러 나라와 地域에의 擴大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특히 解水무드속에서 새로운 政治와 社會秩序를 찾기 위해서 過渡期的인 陣痛을 겪고 있으며 中東事態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는 사이에 日本의 擡頭, 東西獨統合에 따른 所爲 統合獨逸의 影響 그리고 開發途上國의 擡頭 등 등 本格的인 經濟競爭이 熾烈化해 가고 있다.

國內으로 볼 때에도 여러 環境變化가 예상된다. 93년의 政權移讓을 앞두고 各種選舉 즉 國會議員選舉와 大統領選舉가 92년중에 있을 예정이고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廣域團體長의 選出과 풀뿌리 自治制 團體長의 選舉와 같은 네번에 걸친 選舉가 年中 無休로 展開될 것이 豫想되고 있으며 이미 一部에서는 選舉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의 過熱이 豫見되어 鎮定에 腐心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우리는 選舉라면 過熱하기 쉽고 돈을 뿌리는 選舉가 되기 쉽고 이 4大選舉에 6兆원이 뿌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들 選舉가 92年 經濟에 어려움을 줄 것은 뻔하다. 거기에다 우리는 봄에는 으레히 春季鬭爭이 있게 마련이어서

92年 봄에도 例外일 수는 없다. 더군다나 選舉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勞動鬭爭이 過擊化하지 않을까 하는 憂慮도 없지 않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妥結 結果와 우리 產業의 競爭力 弱화에 따른 輸出 萎縮, 政府의 減水現象 거기에다가 企業家의 萎縮과 勤勞者의 3D現象露呈, 國民의 解弛한 姿勢 등 등 우리 自身의 對應姿勢에 더욱 더 큰 問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政府도 92년의 우리 經濟가 어렵게 되리라 보고 있으며 表7에서 볼 수 있듯이 各民間經濟研究所도 92년의 우리 經濟를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다. 經濟成長率은 7.5에서 8.2%선으로 보고 있으며, 民間消費는 7.2에서 8.5%로 固定投資는 3.5에서 11.5%로 經常收支는 한결 같이 赤字로 보고 있으며 最小 마이너스 31億弗에서 最大 마이너스 110億弗로까지 보고 있다. 輸出은 782億弗에서 828億弗로 보고 있으며 증가율도 10.1%에서 13.0%선으로 보고 있다. 輸入은 835億弗에서 970億弗로까지 보고 있어서 8.5%에서 14.1%까지로 增加率을 내다 보고 있다. 이에 따라 輸出入差는 88億弗에서 145億弗로까지 보고 있으며 消費者物價는 7.5%에서

<表 7> 民間經濟研究所의 92年 經濟展望

	삼 성	대 우	럭 키금성	쌍 용	제 일	현 대
실질경제성장율(%)	7.6	8.2	7.4	7.5	7.5	8.2
민 간 소 비 (%)	7.2	8.5	7.8	7.8	7.8	—
고 정 투 자 (%)	10.2	10.3	10.0	3.6	11.5	—
경 상수 지(억달러)	△ 101	△ 110	△ 75	△ 55	△ 50	△ 31~△ 50
수 출 (억 달 러)	828	825	797	825	821	782~810
(증 가 율)	(13.0)	(13.0)	(10.1)	(13.0)	(12.7)	
수 입 (억 달 러)	967	970	905	925	909	835~869
(증 가 율)	(14.0)	(14.1)	(8.5)	(10.1)	(9.7)	
수출입차(억달러)	△ 139	△ 145	△ 108	△ 100	△ 88	—
소 비 자 물 가 (%)	8.5	10.0	8.3	7.5	12.0	8.7
도 매 물 가 (%)	4.0	4.0	3.0	4.5	7.0	—

※ 수출-수입은 통관기준

12%, 都賣物價는 3.0%에서 7%로까지 各研究機關마다 千差萬別의 視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政府나 各研究機關 모두에 一致하는 見解는 한결 같이 92년도 91年 못지않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政府도 總需要管理를 대폭 強化하고 賃金, 物價 등을 포함한 經濟安定에 92年度 經濟運用에 最優先順位를 두기로 했다고 한다. 政府가 내걸고 있는 92年度 經濟運用 10大課題로 보고 있는 것은

① 賃金安定誘導→90年 勤勞者 名目賃金上昇率은 16.8%로 90年 1/4分期(1~3月)중 日本의 4.7%의 3배, 台灣의 12.4%의 1.3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勤勞者의 勞動生産性增加率은 5%로 日本의 6.1%와 台灣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國內製造業體들이 對外競爭力을 回復하기 위해서는 賃金安定이 必須의이며 따라서 92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賃金安定努力을 해야 하며 政府管理企業體는 5~7%선으로 내다보고 있다.

② 輸出支援金擴大→최근들어 地方中小業體를 中心으로 深刻한 資金難을 겪고 있으며 一部 工場의 稼動中止, 倒産 등의 副作用도 나오고 있다. 輸出을 늘리고 貿易赤字를 줄이기 위해 92년에는 技術開發 등과 함께 企業環境 改善對策과 輸出産業에 보다 많은 資金이 돌아가도록 輸出業種에 대한 資金配分 擴大方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中企競爭力提高→不況産業에 대한 構造調整이 時急하고 競爭力이 없는 業體는 合併이나 業種轉換을 誘導하고 解雇勤勞者에 대한 職業訓練을 통해 他業種으로의 再就業을 促進시키는 方案을 講究한다. 이와 함께 製造業 競爭力強化의 土台가 되는 科學 및 産業技術開發 事業을 重點의으로 推進하리라 한다.

④ 金融選別機能強化→92년에 總需要管理를 強化해 나가되 이로 인해 輸出産業이나 中小製造業의

資金難이 深化되어서는 아니된다. 生産의인 部門에 대한 資金配分이 円滑해 지도록 金融의 選別機能을 強化하고, 특히 重複 過剩投資를 가려내기 위해 事業者團體, 金融機關, 政府 3者間의 協議를 통한 大型投資産業의 事前平價機能을 制度化한다.

⑤ 에너지消費抑制→石油消費는 85~87年 사이에 年平均 2.7%가 늘어난데 비해 88~90년에는 年平均 19.1% 增加한데 이어 91년에는 19.2%로 增加率이 높아졌다. 多角的인 에너지消費抑制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⑥ 對日逆調是正→우리 나라의 對日貿易赤字는 90년에 年間 59億弗이었으나, 91년에는 지난 9月末 現在 67億弗로 늘어났다. 對日逆調를 改善하기 위해서 對日輸出 有望品目を 적극 發掘하고 機械類, 部品 등 主要對日輸入品の 國産化推進計劃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⑦ 建設景氣鎮定→建設許可面積이 90年 2/4分期부터 減少推勢로 돌아섰고 住宅價格도 90年 5月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92年の 選舉要因으로 不動産價格이나 建設景氣가 刺戟되지 않도록 92年度の 建設投資 鎮定化 方案과 住宅土地關聯稅制의 實效性을 높일 수 있는 具體的인 方案마련을 할 것이다.

⑧ 農業構造改善→우루과이 라운드協商妥結과 農産物部門 市場開放에 對備, 農業構造改善對策을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對外競爭力이 있는 品目を 發掘, 重點 支援하고 耕地整理 事業 農業構造改善事業, 農業機械化등을 推進한다. 商品性이 있는 高品質의 作物開發을 위해 農水産部門의 研究開發投資를 擴大한다.

⑨ UR後續對策→UR協商이 本格化될 것이므로 經濟企劃院 農林水産部등 關係部處로 構成된 常駐代表團을 派遣, 市場開放에 따른 國內關聯産業被害를 最小化할 수 있는 對策을 推進한다. 多者間 協商과 함께 美·日·EC 등 影響력이 큰 國家들과의 雙務協商도 展開, UR協商에 대한 우리의 立場

을 적극적으로 說得한다.

⑩ 國民生活改善→京仁·京水 등 交通隘路 區間의 疏通이 円滑해 질 수 있도록 하고, 環境改善 中期綜合計劃의 92年度 細部施行方案과 食生活改善 및 食品衛生 強化方案을 마련했다. 특히 맑은 물 供給을 위해 大規模 下水處理場 建設을 推進하고 大氣汚染防止對策과 有害物質處理場擴充事業등을 推進한다.

3. 今後的 展望과 對策

92年の 우리 經濟가 이런 어려운 局面에 있기는 하지만 國內外에 걸친 政治 社會 各部門의 變化가 어떤 方向으로 돌아가고 主要經濟變數를 어느 線으로 잡느냐를 前提로 함에 따라서 우리 經濟의 92年 展望도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元貨換率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어느 研究機關은 90年末 年末로 달러당 716원40전, 91년말 750원(4.5% 切下), 92년말 765원(2.07% 切下)으로 보고 있으나 91年 10월말 이미 751원선이 되고 있고 금후에도 훨씬 經常收支赤字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弱勢基調가 계속되고 그 幅이 커질 것으로 豫想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我田引水格인 이야기인지는 모르나 貿易業界 一角에서는 800원線까지 가야 輸出競爭力이 살아난다는 등등 이야기도 있어서 91年末에는 760~765원線 92년에는 800원線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그리고 92年度 通貨供給事情을 보건데 어느 經濟研究機關은 90年の 總通貨增加率은 平錢으로 21.2%였었고 91년에는 20.0% 92년에는 18%로 내다보고 있다. 政府가 내걸고 있는 92政策目標가 經濟安定에 있다고 할진데 國際收支防禦對策으로 內需景氣鎮定을 위해 總需要管理를 더욱 強化할 것이고 物價上昇壓力(高賃金, 高金利에 의한 費用壓迫, 各種選舉 및 膨脹豫算)에 對備하기 위해서도

通貨供給을 緊縮的으로 運用할 것이 豫想되기도 하지만 各種選舉 및 이와 關聯된 財政支出과 企業經營狀況으로 보아 20%선에 이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金利는 金利自由化로 現在의 名目金利 보다는 實質金利로 接近하기 때문에 좀 더 上昇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간 우리 92 經濟는 世界景氣가 若干 回復할 지도 모르나 輸出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經濟樣相을 보일 輸出主導型 經濟인 우리 經濟는 우리 產業競爭力의 限界 즉 高賃金, 高原價, 低生産性, 低品質化, 勞動忌避, 勞使紛糾, 資金不足, 鐵道·高速道路停滯 港灣遲滯 등 社會間接投資 不足 등 여러 隘路로 本格的인 回復勢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 나빠져 지난 4年間 國內經濟를 지탱해 온 內需景氣도 점점 鈍化되어 實質經濟成長率이 91년에 豫想되는 8.0%선 보다도 더 낮아진 7.5%선에 이를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土地와 建築景氣는 그 동안의 거품經濟로 土地投機抑制과 建築規制로 鎮定 내지 後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經濟의 바탕이 되는 輸出은 世界經濟의 回復勢가 잠진적으로 可能할 것으로 보는 見解도 있으나 우리 輸出競爭力의 弱化和 國內產業의 空洞化現象 등으로 本格的인 好調勢는 期待할 수 없어 그리 큰 增加勢를 豫測하기는 어렵다.

民間消費는 그 동안 好況이 되어 왔던 높은 賃金 上昇勢, 不動產 및 株價上昇에 따른 名目所得 增大 效果 등이 점차 鎮定되고 國民氣風이 약간 振作되는 風土가 造成됨에 따라 例年 水準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國內產業의 競爭力 弱화로 輸出커녕 輸入이 오히려 生活必需品 혹은 奢侈品 高級品을 中心으로 急増할 것이 豫想되어 國際收支赤字는 91年 보다도 더 增加할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를 갖게도 한다. 한편 固定投資는 政府部門 選舉와 關連하여 好調勢를 보일 것이나 이것은 크게 늘어난 92年 豫算으로써도 가히 짐작이 가는 일이라 할 수 있으나 民間의 設備投資는 景氣不況, 景氣豫測의

不透明, 資金難과 人力難, 輸出競爭力不足 등으로 보아 크게 萎縮될 것으로 보여진다.

92년의 國內物價도 政府가 92년에는 物價安定과 國際收支 防禦對策의 一環으로 總需要管理를 계속 強化하고 建設景氣를 鎮定시키려는 各種 努力을 지속할 것으로 公言하고 있기는 하지만 92년이 執權 終盤期인데다가 各種 選舉가 겹쳐 公約事業을 中心으로 한 財政支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며 高金利 高賃金에 따른 原價壓力이 加重될 것으로 보이며 一部企業이 資金需要가 늘어나 企業倒産이 連鎖적으로 일어날 우려도 없지 않아 이를 그대로 放置할 수 있느냐의 問題 등등에 있어서 總需要管理의 積極化도 限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消費者物價上昇率이 10% 內外가 될 것이며 國民의 皮膚物價는 그를 훨씬 上廻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면 이런 92년의 우리 經濟는 成長, 國際收支, 物價 모든 면에서 91年 보다는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을 政府는 말할 必要도 없고 各經濟研究機關 모두가 한결같이 強調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은 뚜렷한 對策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 具體案이 착착 實踐되어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 經濟現實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經濟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相當한 水準에까지 끌어 올려 놓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施設에서 商品을 만들어 장사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따라 가지 못해서 經濟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從前의 우리 經濟가 繁榮했던 各種要因 즉 最高統治者의 確固한 리더쉽과 祖國의 近代化와 民族經濟確立이란 崇高한 經濟哲學이 있었으나 그것이 完全히 喪失되어 經濟政策이 方向을 잃고 있으며 이에 따라 政治不安과 社會不安이 超來되고 있다는 우리의 안타까운 現實이다.

「強將 밑에 弱卒없다」는 말과 같이 지난 날의 經濟官僚社會는 밤을 새워가면서 熱心히 社會主義國

에서 「中央統制計劃經濟」의 模範으로까지 읽혀질 정도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옛날만 못한 것이 또한 現實이다.

또한 企業家들도 옛날과 같은 冒險的 企業家精神이 지난 날만 못하고 革新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생택」 아닌 財택에서 利潤을 創出하려는 傾向이 없지 않다. 勤勞者 역시 지난 날과 같은 秩序밑에서의 勞動 보다는 鬪爭과 對立에 의해서 勤勞條件의 向上을 꾀하고 있어서 勞使紛糾가 끊이지 않고 있다. 國民들 역시 지난 날의 勤儉節約의 姿勢가 아니고 그것도 世代가 낮아짐에 따라서 더욱 더 그러한 傾向이 짙다. 이런 政府, 企業家, 勤勞者, 國民 모두의 經濟發展潛在要因이 蠶食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옛날로 되돌리는 「第二의 出生」의 피나는 自己革新에 의한 自己革新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의 經濟狀況에 대해서 銳利한 視覺으로 있는 그대로를 直視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 經濟를 우리는 지금 「거품狀況」으로 되어 있음을 꿰뚫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政治安定, 社會安定이 되도록 모든 國民 主體가 自制 協助해야 한다. 東西古今을 통해서 政治不安, 社會不安의 바탕위에서 經濟開發이 된 나라는 있을 수 없었다는 事實을 直視하고 政治安定, 社會安定에 翁分の 協助와 自制를 해야 한다.

우리 經濟 역시 불록經濟化가 不可避하다. 우리의 經濟불록化는 地域的 特性으로 보아 日本과 中國 그리고 우리를 包含한 東北亞經濟圈 즉 東海와 黃海 經濟圈에다 더 크게는 凡太平洋經濟圈의 問題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韓·中·日의 三國間 經濟協力에 있어서 日本과는 우리가 高級部品, 高級素材, 高級設備 그리고 高級機械에 뒤져 있는데 이는 高級頭腦와 高級技術에 依存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日本에 크게 뒤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日本에서 輸入해 다 우리의 人力으로 組立해 輸出해서 輸出立國했다

고 할진데 최근에는 우리들도 이젠 「貴하신 몸」이 되어 몸으로 떼는 일 즉 싼 賃金으로 長期間에 걸쳐, 설혹 나쁜 勞動環境下에서도 熱心히 일하자는 意慾이 지난 날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中國에 「몸으로 떼는 일」은 뒤지는 傾向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經濟現實로 보아 우리는 좀더 앞으로 몸으로 떼는 人力을 바탕으로 머리를 開發하는 일 즉 技術開發을 하루 빨리 促成하는 일이 時急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모두 나 때문이야」란 생각으로 우리들 自身에 歸責原因을 찾고 競爭力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많은 貯蓄, 보다 많은 生産的 投資 그리고 經濟의 基本인 보다 熱心히 일하는 일인 四高政策을 實效있도록 展開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어려운 條件下에서도 우리 4千萬이 마음

을 숨해서 一絲不亂하게 熱心히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1백년 내지 2백년이란 長久한 歲月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을, 外形이라 할지라도 20년 내지 30년 사이에 이룩하였다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Can do 정신이 지난 날만 못하다는 事實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Can do 정신은 世代가 내려감에 따라서 더욱 더 弱化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또 다시 Can do 정신의 再蘇生을 꾀하도록 最大의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다시 한번 92년이 어려운 한 해로 豫想되지만 우리 하기에 따라서 생각 보다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肯定的, 積極的 問題解決的 姿勢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땀흘려 이룬 경제, 사치 낭비로 무너진다.